

내 마음의 불사 마치지 못해 늘 직무유기

노적사 주지 종후 스님



종후 스님은 ...

전북 완주에서 태어난 종후 스님은 1967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월산(月山)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조계종 중앙교육원 1기 수료의 이력을 가진 스님은 1976년 불국사 강원 대학교를 마쳤다. 조계종 총무원 교무국장, 중앙총회의 원, 고양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사)이웃을 돕는 사람들 회장,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이사, 영등포교도소 교정위원 등을 지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학과와 불교경영 최고위과정을 수료한 스님은 수필집 <노적사의 봄>, 교리서 <불교사상의 바른 이해> 등을 출간했다.



북한산에 봄이 왔다. '북한산'이나 '삼각산'이나 산 이름을 두고 고양시와 서울의 도봉구가 입씨름을 하고 있지만, 자연은 인간의 소견과 상관없이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잎을 틔운다. 계절마다 물 흐르는 소리가 요란하다. 산 들머리부터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고 계절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살구꽃과 벚꽃의 연분홍에 취한다. 운하교에서 올라다보니 노적봉도 봄기운을 한껏 머금고 있다. 노적사(露岬寺). 노적봉 아래 위치한 연유에서 절 이름이 노적사다. 노적봉은 북한산의 수많은 봉우리 가운데 가장 중앙에 위치하여 다른 봉우리들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삼각산이라고 할 때의 삼각은 세 개의 봉우리를 중심으로 한 산을 의미한다. 이 세 개의 봉우리는 백운대 국망봉 인수봉을 말하기도 하고 백운대 국망봉 노적봉을 꼽기도 한다. 절을 창건한 계파성능 스님이 그린 '북한산도'를 보면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문수봉 보현봉 등의 봉우리 가운데 노적봉이처럼 우뚝 솟은 노적봉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의 감로(생명의 상징)가 쌓여서 봉우리를 이루었으니 노적봉은 그대로 생명의 기원과 진리의 향기를 품은 영봉인 것이다. 1712년(숙종 38) 진국사(鎭國寺)란 이름으로 노적사를 창건한 성능 스님은 화엄사 각황전을 증건한

스님이다. 성능 스님의 권선모연에 자신의 가난을 한탄하고 후세를 발원하며 스스로 연못에 몸을 던졌던 노파의 후신으로 태어난 공주의 손에 '장륙전'이란 글씨가 쓰여 있었다는 내용의 화엄사 각황전 중건 설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팔도총섭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던 성능 스님은 북한산성 축성과 여러 사찰을 창건하고 승병을 관리하는 등 빈틈없이 소임을 완수했다. 스님이 남긴 <북한지>에 '노적봉 아래 중성문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85칸이다'라는 진국사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진국사는 언제 어떤 연유인지도 모르게 폐사가 돼 빈터만 남아 있었다. 1960년 무위 스님과 불자들의 발원으로 절이 다시 지어지고 이름을 노적사라 했으며 1977년부터 종후(宗厚·69) 스님이 주지를 맡으면서부터 차분하게 중창불사가 진행돼 지금 대가람의 면모를 갖췄다. 돌계단을 올라 노적사 적멸보궁 앞에 이르니 마당을 급히 지나가는 종후 스님이 보였다. 마침 다음날(4월 20일) '국민회화 조국통일 세계평화를 위한

노적사 비로자나불 기원대제' 여서 스님과 불자들의 손과 발이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각자 맡은 곳에서 활기차게 자신의 일을 하는 불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꽃이었다. 노적사의 비로자나불 기원대제는 호국호법의 가르침을 줬던 성능 스님의 창건원력을 계승하는 중요한 행사다. 마당에 서서 인사를 드리고 "30년 많은 중생들이 귀의하여 마음 밝히게 했는데 왜 직무유기라 하십니까? " "약속을 하고 보니 오늘이 이렇게 바쁜 날이군요. 어서 들어가 차나 한 잔 나눠주세요. 현명하신 독자님들께 내가 뭐 드릴 말씀이나 있는지, 자격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단장한 동인당(東印堂)에서 직무유기에 대한 궁금증을 다시 여쭙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있을 수 없는 성격이라서 지난 세월 많은 일을 했고 그 결과로 도량이 정리된 것은 맞아요. 하지만 내 마음의 도량은 아직 불사를 마치지 못 했으니 늘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옷(법복)을 입은 목적이 뭐니까? 자신의 일대사를 해결하면서 인연 중생들의 마음에 등불을 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늘 안의 일보다 바깥일에 더 끌려 온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보살도를 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위로 진리

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교화한다. 그런데 혹자는 묻는다. '진리와 교화에 위아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냐'고. 종후스님의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확답이 아닐까? 위아래를 따지지 않는다. 그저 한마음 속에서 참나의 간격도 없이 안살림과 바깥살림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보살은 분별하지 않고 차별상을 허락하지 않는다. 안과 밖이라는 허울도 사실은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깨달음 깨달음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도 말하는데, 도대체 깨달음은 어떻게 입증될 수 있습니까? 깨침은 안쪽의 일인데,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어떤 것이 옳은가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변(思辨)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단언해요. 이렇게 따지고 분별하다보면 불교는 도무지 어렵고 지루한 망상덩어리가 되고 말아요. <법화경> '방편품'에서 가르치듯, 드러나는 모든 모습과 행하는 모든 짓은 방편이지 궁극이 아닙니다. 그 방편 속에서 궁극을 가려내는 사람이 참사람입니다. 분별심을 타파하고 차별상을 허물어뜨리는 곳에서 깨달음의 씨이 되고 그 씨는 곧바로 자비의 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나 분별망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안살림과 바깥살림이 여여(如如)하다고 할 수 있

따지고 분별하면 불교는 어렵고 지루한 망상

불자의 하루하루는 그대로 생명운동 돼야 해

휴휴암 지혜관세음보살님 점안식

휴휴암 앞 동쪽 끝자락에 높이 53자 지혜관세음보살님과 좌우 협시불로 동해 해상왕님 남순동자님 거대한 용선 등을 3년 전부터 조성불사를 하여 경인년 5월 7일 (음 3월 24일) 관음재일날 점안식을 봉행하게 되어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들을 휴휴암으로 초대합니다.

휴휴암 사부대중 일동

- ◆ 5월 6일 : 전통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전 야 제 공연'
- ◆ 5월 7일 : 점안식 법어 및 오늘은 좋은날 '마당놀이 공연'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 033) 671-0093, 0094, 0095



이름다운연꽃!
향기로운연꽃!
집에서 키워 보세요.

보현선원에서 연꽃새싹을 불자님께 무료로 분양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꽃 등 밝히듯 내 마음도 연꽃같이 되길 발원하며 예쁘게 키워 보세요.

'5월 14일(음, 4월 1일) 오전 10시' 부터 선착순으로 나누어 드립니다.

(사월 초파일 연등 접수 합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4동 1184-3 국악고등학교 정문 앞 보현선원 02) 579-3690